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이 태 영* · 권 보 민** · 권 순 우***

A Deaf Peoples' s Job Selection Factors: A Case Study

Lee, Tae-Yong* · Kwon, Bo-min** · Kwon, Soon-woo***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personal factors of the deaf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occupation and what implications can be given by this case study in fostering and guiding deaf children and adolescents. **[Metho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deaf people with various occupation selection factors. **[Results]** The personal factors affecting job choice by Deaf people included personality, talent, and Deaf identity. The research participants had formed timid personalities as a result of experiencing frequent unpleasant incidents due to their hearing impairment. However, their attitudes became more positive when they learned sign language and participated in their communities. Their new confidence, talent, positive attitudes, and courage based on their Deaf identiti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ir choice of employment. This study's results showed that Deaf people's choice of job depends on diverse, organically related factors rather than on a single dominant factor. Considering all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ocess of choosing a job by Deaf people, it is important that they have opportunities to cultivate healthy Deaf identities. **[Conclusion]** Emotional interaction and support from the primary caregivers of Deaf children are essential, as is standardizing the communication format with Deaf children. The finding that every research participant had unpleasant experiences at school indicates that appropriate education services and school environments are critical to ensure that Deaf students have a pleasant school experience.

Key Words : Deaf Identity, Hearing Impairment, In-depth Interview

* 제 1저자, 구리 인창고등학교 특수교사
Special Education Teacher, Guri Inchang High School

** 공동저자,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Doctoral Student,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소장(ksww1114@hanmail.net)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과정까지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립적인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며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유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일에서 보람과 긍지를 얻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등이 향상된다.

학교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듯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신의 인생 모습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진로 성숙을 통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진로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이진숙 외, 2014).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자연스럽게 미래 직업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장애를 인식하게 되면서 농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농정체성은 크게 4가지로 청인 중심 정체성, 주변 정체성, 몰입 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권순우 외, 2020), 주변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

청소년기에 확립된 농정체성은 성인기에 바뀌는 경우가 있으나, 유년 시절에 장애로 인한 실패 경험이나 좌절 등을 경험하게 되면 성인기가 되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는 본인의 농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수용하고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농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이준우, 2003),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정체성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적 요소가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인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청각보다는 시각 단서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인과 대비된다. 출생 시부터 자연스럽게 언어 경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인과는 달리 농인은 언어 습득의 첫 단계인 듣기에 어려움을 느껴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어렵고,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김동화, 2002).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청각장애 유·무를 살펴보았을 때 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농자녀는 대부분 청인 부모의 언어인 한국어를 학습하고, 농인 부모에게 태어난 농자녀는 농인 부모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로 통일)를 학습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인 부

모 밑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농자녀들은 언어습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자언어 발달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곽정란, 서영란, 이정옥, 2011).

안정적이고 일관된 언어환경에서 자라는 농인 부모를 둔 농자녀는 대부분 읽기, 쓰기 능력이 우수하며 뛰어난 학업 성취 수준을 보인다(곽정란, 서영란, 이정옥, 2011)는 연구 결과와 같이 수어를 제 1언어인 모국어로 습득하고, 언어의 체계가 완성된 상태에서 제 2언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청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농자녀의 경우보다 언어 습득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인 부모를 가진 농자녀가 청인 부모를 가진 농자녀 보다 사회성이 높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덜 충동적이며 사려성이 깊은 것이 밝혀졌다(김영익, 권순우, 2021). 이를 통해 부모와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농인의 문해 발달 및 사회성 발달과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포함하여 사제관계, 교우관계 등 여러 관계에서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0%를 차지하는 청인 부모의 농자녀를 위해서라도 농교육에서 수어는 필수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법률, 관습, 그리고 의사소통 등은 모두 언어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출생하여 처음으로 울음을 표현하면서 곧 언어와 만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리로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며 사물의 의미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등의 단계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농인의 언어인 수어는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공식 언어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공와우 수술의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합교육을 받는 농학생의 수가 늘어나면서 농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수어는 농인의 정체성이며, 여전히 농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인의 직업 선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결정 요인을 살펴본 황현철(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직업 유지에 관한 연구로는 직업 유지와 관련한 농문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장은혜(2008)의 연구, 전문직에 종사하는 농인의 정체성과 진로 선택을 살펴본 황진옥(2013)의 연구가 있었으나 직업 결정 요인의 양적 연구로만 이루어졌다는 것과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보다 직업 유지와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제한적이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인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인적 요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농교육 관점에서 농아동과 농청소년의 양육 및 진로 지도에 다양한 시사점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농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인의 성격, 직업에 대한 적성, 전반적인 삶에서 농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경험 등의 개인적 요인과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농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3. 용어 정의

1) 농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력 손실에 중점을 둔 병리학적 관점의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 대신 농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농인이란 제1언어로 수어를 사용하며, 농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2) 농문화: 농인 공동체의 문화를 농문화라고 하며, 본 논문에서는 수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며, 수어로 자기 권리를 옹호하는 것 또한 농문화로 포함한다.

3) 직업 선택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성격, 적성, 농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농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성격, 적성, 농정체성 등의 개인적 요인을 통해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가 어떤 시사점을 가져다주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는 여러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미 라포가 형성된 사람을 선정하여 편안하고 솔직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농인은 총 4명으로 연구 참여자의 실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ame	Sex	Birth year and month	Primary/secondary communication languages	When disability occurred	Hearing test result	Job
A	Female	1994.06	Spoken/sign languages	2 year	Left: 90dB Right: 70dB	Social Welfare Public Officials
B	Female	1994.03	sign languages	0 year	Left: 120dB Right: 120dB	Mechanical Civil Servant
C	Female	1993.08	Spoken/sign languages	15 year	Left: 90dB Right: 90dB	Social Welfare Public Officials
D	Female	1989.10	Spoken/sign languages	3 year	Left: 105dB Right: 110dB	Actor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에 따른 사례 연구를 위해 4명의 농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심층 면담 방법을 실시하였고, 개별적인 심층 면담의 질문지는 개방형 질문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관한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사이 약 2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면담을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경험을 진솔하게 듣고,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면담 후 수집된 심층 면담 내용은 면담 시 수어를 보고 그대로 타이핑한 내용, 면담 상황이나 내용을 정리한 노트 등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1) 자료 수집

(1) 질문지 제작

본 연구의 질문 내용은 청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결정 요인에 관한 황현철(2011)의 연구,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의 전환 경험에 관한 양초연(2022)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면담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1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고, 관련된 연구 주제에 대하여 애매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지도교수와 함께 질문지를 적절하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기 위한 질문 내용 및 면담 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농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개인적 요인으로, 성격, 적성, 농정체성 등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Personal factors of the deaf about the occupation selection

Interview topic	Detailed question content
Personality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ow do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while you were at school? 2. What about your personality now? 3.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n and now? 4. How does your personality influence your selection of occupation?
Aptitud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hat was your future dream career while you were at school and what was the reason? 2. What was your future dream career after becoming an adult and what was the reason? 3. How does your aptitude influence your selection of occupation? 4. What was your previous occupation before the current occupation? What is the reason for the occupation change? 5. What is the reason for the selection of the current occupation? 6. What are the lacking points while you work? 7.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your occupation?
Deaf identity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hen did you recognize that you were a deaf person? 2. What do you think about deaf? 3.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eaf identity? 4. When was the first time you learn about sign language? 5. What impacts do sign language have on our life? 6. How does your deaf identity influence your selection of occupation?

(2) 면담 방법

본 연구는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미리 발송하여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본 연구에 관한 목적과 관련하여 사전에 설명하였고, 연구에 대해 동의한 4명의 농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또한 농인이기에 별도의 수어 통역사 배치 없이 1대 1로 직접 대화를 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3) 면담 시간

연구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퇴근 후 회사 인근의 카페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까지이다. 연구 참여자는 사전에 면담 질문지를 받아 면담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 후 면담을 실시했으며, 면담이 끝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카카오톡 메신저나 메일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보충하였다. 면담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 1명당 면담 시간은 약 70분 내·외였다.

(4) 면담 절차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료 수집을 위해 각 연구 참여자에게 면접 취지와 면접 방법, 연구자 윤리 등에 관해 안내하였고, 연구자들의 확인을 받은 뒤 1:1 정식 면담을 시작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진행 정보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Information on Conducting Interviews with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Participants	Date	Place	Time Required(minute)
A	2022. 9. 6	Cafe near the office	70
B	2022. 9.22		75
C	2022.10. 5		60
D	2022.10.18		80

2) 자료 분석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으로 동시 녹화하였고, 녹화된 영상은 최대한 면담을 실시했던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전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연구 참여자가 서술한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전사하고자 노력하여 면담 내용의 왜곡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노트북으로 실시간 면담 노트를 사용하여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상황 등을 담았으며, 면담을 실시한 이후 부족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이에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면담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상호 관련성이 있도록 하여(정상원, 김영천, 2014; 양초연, 2022 재인용)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개별 심층 면담 결과 A4 용지 총 30쪽 분량의 전사본이 나왔으며,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지도교수와 연구자가 함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반복하여 확인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보완하였다.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이용하여 면담에 대한 전사 자료를 분석하였다(유기웅 외 2019). 먼저 대략적인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 면담 질문지와 전사된 면담 내용을 읽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목적에 맞는 단어 혹은 구절을 기술하였다. 이렇게 주제가 나

타나는 단어를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로 나누었으며,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총 2개의 대범주, 6개의 중범주, 24개의 소범주가 도출되었다.

4. 연구의 신뢰도 확보 및 윤리성 고려

1) 연구의 신뢰도 확보

본 연구에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김영천, 정상원, 2015)를 얻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면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본인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편향성을 갖는 오류를 줄이고자 지도교수와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내용 보완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자료적 의미 분석과 해석을 강조하여 연구 참여자 본인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삼각검증법의 사용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편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유기용 외, 2019), 한 가지 방법으로 연구자만 검토하는 것보다 연구 전사 자료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정확한지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하고 상호 보완하는 절차를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도 또한 높일 수 있다(황순영, 2005).

2) 연구의 윤리성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4명에게 사전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의 목적과 연구 절차에 대한 안내, 연구 참여의 자발성 및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비밀 보장, 연구 참여를 통해 얻는 혜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윤리적 준거를 따랐다.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을 하기 전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 윤리성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과정 동안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잊고 있었던 순간을 떠올리거나 숨기고 싶었던 감정을 다시 드러낼 수도 있게 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윤리적 사고와 감정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농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개인적 요인

이 연구 결과의 면담 분석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Personal factors of the deaf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occupation

Large category	Middle category	Sub-category	Concept
Personal factors of the deaf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occupation	Personality	Personality in the school years	Timidity, too conscious about others, desire to be recognized, good child complex, friendliness, spineless, indecisive, lack of determination, cheerful, caring, dispirited
		What has changed from the current character	Positive, confident attitude, claiming the right, independent, enjoy the moment, unafraid, calm, determined, loving myself
		Factors of your personality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occupation	Having spare time to look back on myself, a personality that does not fit into a competitive society, disappearance of fear of challenges, likes to communicate with others
	Aptitude	Future dream	Inconvenience and sense of difference as a minority, blind spot of welfare, deafness, stable occupation, my own talents
		Occupations you did not try due to disability barrier	Requires fast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psychological withdrawal, no special things to do, I thought I couldn't do naturally because of deafness
		Job satisfaction	Work assistance scheme, less competitive atmosphere, no risk of layoff, the standard of deaf identity, self-esteem, lack of disability awareness, unsatisfactory work environment
		Factors of your aptitude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occupation	Good influence, interested in attending a private computer institution, quick-witted
	Deaf identity	Awareness of own disability	Aware of the difference from non-disabled people, psychological withdrawal, negative attitude, social disorder, obsession with sound
		Realizing a deaf identity	Establishing an autonomous and independent self,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sign language of the deaf, deaf culture, policy movements that narrow the gap between the disabled and society, positive attitude toward deaf culture, recognition of disability, how to live in a society
		Influences of sign language on your life	Establishing identity, deaf awareness, self-completion, positive attitude, challenge spirit, confident and forward-looking way of thinking, personal relations, positive attitude, the joy of learning, my value
		Influences of your deaf identity on the selection of occupation	Protection of rights, work assistance scheme, special screening, own capability

1) 성격

성격은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점진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창 시절의 성격, 현재의 성격과 달라진 점, 자신의 성격이 직업 선택에 준 영향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창 시절의 성격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만큼 이때 경험한 것들이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청각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농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농정체성 또한 혼돈을 경험하기도 한다. 학창 시절의 성격과 지금의 성격을 비교하기에 앞서 먼저 학창 시절의 성격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절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었고, 소심했어요. 피해를 보게 되어도 한마디 말도 못 하는 연약한 성격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여 필요 이상으로 배려하고 신경 쓰곤 했었어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맞춰줘야 내가 도태되지 않고, 외롭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행동하다 보니 극단적인 착한 아이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A).

जू대가 없고 다소 우유부단했어요. 제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웬만하면 주변 사람의 의견에 다 맞춰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포용력과 이해심이 좋다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을 미덥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단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어요(연구 참여자 B).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친구들한테 먼저 장난도 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꽤 밝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소심해졌어요(연구 참여자 C).

저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늘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어요.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춤도 보여 주며 웃겨주기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했지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제 장애에 대해 인식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 B, C, D는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반학교에 재학하였다. 그 중 연구 참여자 B와 D는 유치원만 서울 소재 특수학교 유치원을 다녔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찍이 수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다른

연구 참여자들보다 농사회에 다소 빨리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A는 학창 시절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학창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부정적인 기억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맞춰줘야 도태되지 않고, 외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행동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정보 습득의 어려움으로 상황 파악이 다소 느리다 보니, 의견을 먼저 내지 않게 되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성격이었으나,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생기는 친구들과의 작은 오해로 본인의 장애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소심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타고난 기질로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급우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 그러나 농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오해가 생김으로 인해 다소 의기소침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이 학창 시절을 회고하며 공통적으로 드러난 점은 모두 청각장애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인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언어획득 시기인 영·유아 시절의 언어획득을 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장은혜, 2008).

(2) 현재의 성격과 달라진 점

인간의 성격은 한 가지 특성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시기나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변화하기도 한다. 타고난 기질 덕분에 여전히 활발한 성격을 유지하는 연구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내성적인 면모는 여전하여 자신의 의견을 잘 내지 못하는 성향을 지닌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전히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이 있지만, 밝고 긍정적이며 당당해진 점이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해졌고, 내 편이와 내 권리를 남의 것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더 소중하고, 내 권리를 위해 하는 일에 대하여 남들의 언짢은 시선 정도는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됐죠. 제 삶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 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민감하고 가능하면 충돌은 피하려고 노력해요. 여전히 웬만한 상황에 대해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따르는 편이고, 불편하더라도 속으로 삼킬 때가 종종 있어요. 예전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정해진 틀 안에서 저를 통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지금은 이 순간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하는 편이지만, 모순적이게도 지금을 즐기기

위해 꽤 충동적으로 결정할 때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연구 참여자 B).

학창 시절에 비해 많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청인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입학 후 농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수어, 필담, 바디랭귀지 등 의사소통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고,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기니 무언가를 해낼 용기 또한 생겼어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연구 참여자 C).

지금도 순수한 마음은 여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냉정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느 정도 단호함을 가지며 판단하는 능력도 생긴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제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언제나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노력하는 경향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저보다는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먼저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 제일 많이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학창 시절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었지만, 지금의 성격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자기 권리를 옹호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당당한 성격을 가진 주체적인 성격이 돋보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여전히 불편한 상황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따르는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줄 아는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C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밝은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소극적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대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농인과 어울리면서 수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면서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성격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지만,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유지해왔다.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향이었지만, 지금은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학창 시절에 공통적으로 청각장애로 인해 소극적인 면모를 보였으나, 뒤의 연구 내용에 나오는 것과 같이 수어를 배우고 농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자신의 성격이 직업 선택에 준 영향

과거의 저였다면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수용하고, 작고 볼품없는 업무를 불만 없이 받아들이며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남의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제가 스스로 오롯하게 그 길을 헤쳐 나가고 싶어요(연구 참여자 A).

공감 능력이 좋고 눈치도 빠르며, 이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잘 적응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성격 자체가 경쟁사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공무원을 택한 것도 있어요(연구 참여자 B).

확실히 대학교 입학 후에 도전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의 직업도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했었어요. 막상 도전하니 힘들어서 1년만 하고 때려치우자는 생각으로 임했더니 다행히 바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C).

저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좋았고, 손재주가 뛰어나서 자연스럽게 헤어디자이너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리스타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정말 커피를 좋아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있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배우와 댄서도 마찬가지로 무대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인드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학창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힘들었으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그것이 사회복지 전공으로 이어졌다고 하며 직장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어주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공무원의 길로 뛰어들어 주체적인 업무를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는 자신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성격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성격 변화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이전에 가구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시시때때로 실적을 요구하는 곳이라 힘들었다고 하였다. 본디 귀찮음과 게으름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순간적인 집중력과 몰입력이 좋은 연구 참여자 B는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노선으로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며 조용히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평화주의적인 성격의 영향을 받아 경쟁 분위기가 덜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대학 입학 전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선불리 도전하기를 꺼려했으나, 수어를 배우고 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무원 시험

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도전 정신은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변한 성격이 결국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D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업인 헤어디자이너, 바리스타에 종사해왔다. 이렇듯 사람과 소통하길 좋아하는 성격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지금의 성격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A와 C는 학창 시절과 지금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말하면서 지금의 모습은 본인의 장애에 대해 개의치 않는 성격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 적성

직업 선택 요인 중 적성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성 부문과 관련하여 장래희망, 장애 장벽으로 인해 도전하지 못한 직업, 직업 만족도, 자신의 적성이 직업 선택에 준 영향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장래희망

장래희망은 장차 하고자 하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희망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을 뜻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명확한 장래희망을 품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에는 사회복지사, 특수교사가 꿈이었어요. 장애인이라는 소수자로서 사회에 합류될 때 겪은 불편감과 이질감의 경험이 있었기에 같은 소수자 계층인,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사회복지학과로 입학했어요(연구 참여자 A).

학창 시절 때 부모님이 특수교사가 되는 것을 권유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가장 큰 이유였고, 청각장애를 가진 저의 경험을 살려서 직업으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저도 특수교육과로 대입 준비를 했었어요(연구 참여자 B).

부모님 및 당시 진학 담당 교사의 추천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장래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나, 그 후에 근로지원인 사용이 자유로우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연구 참여자 C).

어렸을 때부터 가수와 배우를 꿈꿨어요. 사실 그때는 TV를 봐도 자막이 없던 시절이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우가 뭐라고 하는지 집중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표정이나 손짓, 몸짓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기를 똑같이 따라

하면 사람들도 너무 똑같다며 재미있다고 말해주는 것도 좋았어요. 또 가수가 추는 춤이 멋있어서 따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의 끼를 발견하게 됐지만, 어차피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있어했던 손재주를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미용에 흥미가 생겼고, 헤어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죠(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학창 시절에 겪었던 장애로 인한 경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졌다고 언급하였다.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을 좋아하고 경청과 공감을 잘하는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심리학과도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B와 C는 특별한 꿈이 없었으나 부모님과 교사 등을 비롯한 주변 어른들의 권유로 각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D는 손재주가 있는 자신의 적성을 잘 되살려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꾸게 되었고, 실제로 헤어디자이너에 종사하게 되었다. 늘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세세하게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눈치도 빨라지고 일할 때 손님의 니즈도 잘 파악하는 등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주변의 권유와 자신의 적성에 맞게 진로를 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장애 장벽으로 인해 도전하지 못한 직업

농인은 청인보다 직업 선택의 폭이 좁다. 시험을 요구하는 직업의 경우, 이론 공부 위해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가 필수적인데 자막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아 선블리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 면담 내용을 통해 장애 장벽으로 인해 도전하지 못한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끝이 섬세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고, 예술 감각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살아 숨 쉬듯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연구 참여자 A).

사실 어렸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낀 뒤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지 비장애인들의 선입견으로 발생하는 에피소드, 그게 사소한 해프닝이어도 혼자서 속을 삭이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급급해서 진정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따로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B).

무언가를 할 때는 친구들이 하니가 따라 하는 등 세상의 모든 일에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도 답변을 해보자면, 제가 장애인인 아니었다면 외교관이 되려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는 외교관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외교관 시

힘의 장벽이 높아서 도전조차 못 한 것도 있었지만, 만약 제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도전은 해봤을 것 같아요.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도 고려했었지만, 장애인을 따로 뽑지 않아서 아쉬웠어요(연구 참여자 C).

어렸을 때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으니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애니메이터와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애니메이터와 외과 의사는 빠른 소통과 협업이 반드시 필수적이라 농인은 그 부분에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의학 계열의 직종은 의사소통에서 오는 결과가 환자의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 B는 초등학교 때 청각장애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고 말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특별히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연구 참여자 B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으며, 어른들의 권유로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외교관은 지금이라도 도전할 수 있음에도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도전 자체를 포기한 모습으로 여전히 장애 장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는 어렸을 때부터 TV에 나오는 가수와 배우를 따라 하며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꿈을 키웠다. 그러나 청각장애로 인해 들리지 않으니 그 꿈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현재의 직업과 다른 장래희망을 품었으나 장애 장벽으로 인해 일찍이 포기하였으며, 심리적인 위축의 경험으로 인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생각조차 못 했던 연구 참여자의 사례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3) 직업 만족도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아쉬운 점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자세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상황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해요. 근로지원인 제도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해 비교적 이해도가 높은 공직으로 들어왔어요. 또한 경쟁과 성과 지향적인 일반 회사보다 공무원이 더 안정적이라는 점도 결정에 큰 몫을 했어요(연구 참여자 A).

상하반기마다 인사평가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사기업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쟁 분위기보다는 덜해서 무난한 것 같아요. 대체로 만족해요(연구 참여자 B).

만족도는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로지원인 제도 덕분에 동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 비장애인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여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점, 경제 영향에 따른 해고 위험이 없다는 점이 이 직업의 장점이자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연구 참여자 C).

배우로서 무대 위에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과 댄서로 무대에 서면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배우와 함께하면서 연기를 배우고,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자존감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배우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만족스러워요(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농인이 아무리 구어가 가능해도 대화나 회의에서 한 템포 느릴 수밖에 없어 사회와의 소통에서는 절대적인 약자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에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안정적인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에 현재 업무 만족도는 높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실적 중심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싫어 공무원으로 이직했으며,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 현재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위의 내용과 같이 대체로 만족하며, 연구 참여자 A와 같은 의견으로 근로지원인 제도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 D는 사람마다 농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가 다르고, 농정체성의 기준도 다양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영원한 과제 같아서 어려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무대를 통해 성공 경험을 얻게 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4) 자신의 적성이 직업 선택에 준 영향

다음은 자신의 적성이 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한 소망이 직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근로지원인 제도와 선진적인 장애인식 정도가 비교적 잘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전향한 것은 맞지만, 처음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어렸을 때 다양한 학원에 다녔어요. 그중 가장 즐겁게 다녔던 학원이 컴퓨터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다루는 데 막힘이 없었고, 제가 거처온 직업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었기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B).

큰 영향은 없었어요.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연구 참여자 C).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입 모양을 열심히 보기도 했고,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사회생활을 할 때 빠른 눈치로 센스를 잘 발휘할 수 있었어요. 미용 일을 할 때도 원장님의 지시대로 빨리 움직일 수 있었고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손님께도 잘 맞출 수 있었어요. 바리스타도 마찬가지였어요. 적응을 빨리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여러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수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적성에 따라 공무원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B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공과에 진학하여 CAD를 배워 가구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으며,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버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였다. 결국 연구 참여자 B는 어렸을 때 다닌 컴퓨터 학원이 도움이 되어 적성을 잘 살린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며, 뛰어난 손재주로 헤어디자이너와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종사하였다. 이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진로 선택을 한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 C는 하고 싶은 일이 특별히 없었기에 적성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3) 농정체성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자아정체성뿐만 아니라 농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농정체성은 크게 4가지로 청년 중심 정체성, 몰입 정체성, 주변 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나누어진다(권순우 외, 2018). 본 연구에서 본인의 장애를 인식한 시기, 본인이 느끼는 농정체성, 본인의 삶에 수어가 준 영향, 본인의 농정체성에 직업 선택에 준 영향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자신의 장애를 인식한 시기

자아정체성이란 인간이라면 모두 겪게 되는 과정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농인은 자아정체성과 농정체성의 혼란을 함께 겪으며 농정체성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장애를 인식한 시기를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다.

대학생 때 농대학생연합회라는 동아리 가입을 계기로 각성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농은 미시적으로는 청각장애, 거시적으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능력이 강화되어 강점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사회 속에서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해준

제가 걸어온 삶의 흔적이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저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연구 참여자 A).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부둥켜안고 오열했었던 기억이 나요. 장애 때문에 장벽에 부딪힌 것도 아니었고, 한계를 느껴서 좌절한 것도 아니었지만, 오로지 비장애인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날로부터 인생이 뒤바뀐 것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가진 장애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부정적인 성격이 남아있지만, 농인들과 함께하면서 수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농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것이 없어 아무렇지 않아요. 하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상, 사회적 장애라는 점을 깨뜨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B).

23세 때 농인임을 자각하게 된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저와 같은 유형의 장애인을 만나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함께 어울리며 비로소 자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저의 이름 앞에는 장애인이라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이제 농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 더 이상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된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건지, 왜 듣기가 되지 않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위축을 느끼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수어를 배우면서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강박증이 사라지고, 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는 없음을 깨달으며 제가 농인이라는 것에 당당해요(연구 참여자 C).

보청기를 착용한 것을 보여주거나 수어를 쓰는 것이 창피했어요. 그런데 저와 달리 당당하게 행동하는 언니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부끄러워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 시점부터가 농인임을 자각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농인 친구를 만나면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농인은 한국어 문법도 약하고 소통이 잘되지 않았고, 구어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싫었거든요. 그래서 구어를 인정해주는 농인이나 구화인 친구들만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당당하게 드러내며 창피해하지 않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조금은 자만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농인임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편한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삶의 질도 더 만족스러웠어요(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저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뿐 장애가 있다고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역설적이게도 대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농인을 만난 후 비로소 자신이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농인들과 만나고 수어를 배운 것이

긍정적인 농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B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고착되었다.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가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수어로 농인들과 이야기하며 농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어렸을 때 한 번 고착된 경험은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오래 가게 됨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C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정도로 인식하였으며, 대학 입학 후 농인들과 수어로 대화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농인임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소리에 대한 강박증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소리에 대한 강박증은 학창 시절의 영향이 컸다고 언급하였다. 그때 당시에 같은 학교에 틱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부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똑같이 당할까 봐 두려워 자신의 장애를 더 숨기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 생긴 오해도 굳이 해명하지 않았으며,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든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리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지금도 하루의 절반 이상을 청인 사회에 있으니 수어 통역을 해주는 근로지원인이 없으면 여전히 긴장하는 습관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농학교를 다닌 친언니의 영향으로 일찍이 수어를 접하였고, 어머니가 자신의 보청기를 자꾸만 가리려는 태도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보청기를 숨기게 되었다. 그러다 왜 보청기와 수어 사용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었는지 자아 성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 친구를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농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고 서술하였다. 스스로가 농인임을 인정하고 보청기 또한 당당하게 드러내며, 수어로 대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모든 것들이 편해졌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 D는 일찍이 농문화에 속하였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기반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농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농문화에 대한 농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조용순, 권요한, 2009)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 자신이 느끼는 농정체성

연구 참여자들에게 농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농정체성에 대해 면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사회 속에서 농인으로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 농정체성인 것 같아요.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수어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되어온 삶의 방식을 농축시킨 농문화, 더 나아가 장애인과 사회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하는 모든 정책적 운동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연구 참여자 A).

제가 생각하는 농정체성은 수어를 제1언어로 삼고 자신의 뿌리, 즉 농인임을 인정하고 농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서 말한 가치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연구 참여자 B).

청인 사회에서 농인이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농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비장애인이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 농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필답이나 수어통역사를 부르겠다고 먼저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연구 참여자 C).

저는 농인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청인 중심으로 살아온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도 구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고, 청인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듣기를 좋아하고, 구어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농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농정체성은 자신이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며 보여줄 줄 알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와 B는 농인의 언어는 바로 수어이며,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농정체성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며 자신만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이 농인이라는 것(이준우, 2002)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농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농정체성이라고 보았으며, 연구 참여자 C는 농정체성은 바로 본인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며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수어를 배우기 전에는 누가 말을 걸 때면 무조건 음성 언어로 대답했지만, 지금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필답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이러한 경험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음성 언어보다 수어가 더 편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농인에게 수어는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장운영, 정호영, 2010)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는 구어를 사용하다 보니 자신이 농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인들은 이를 부정하며 구어를 사용하니 구화인이라고 낙인찍게 되었다. 그로 인해 연구 참여자 D는 농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농인 공동체와 청인 공동체 중 어디에도 명확히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주변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권순우 외, 2020). 그러나 연구 참여자 D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서로의 농정체성이 다양함을 인정할 줄 알고, 각자만의 편한 의사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모두를 수용하려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임했으며, 이는 농인 공동체와 청인 공동체 모두를 존중하고, 각각의 문화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바뀌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주변 정체성에서 이중문화 정체성으로의 농정체성 변화를 갖게 된 연구 참여자 D의 사례를 보면서 수어를 사용하면 농인이고, 구어를 사용하면 구화인이라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드러낸 농정체성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자신의 삶에 수어가 준 영향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수어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수어를 처음 배웠어요. 대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용이었죠. 대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게 됐고요. 만약 제가 수어를 몰랐다면 말을 인식할 어린 시절부터 구어를 사용해왔으므로 불편함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갈등과 혼란은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수어를 사용함으로써 농정체성과 농사회에 다가갈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지금의 저라는 자아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A).

기본적인 수어는 7~8세 때 배웠어요. 만약 제가 수어를 몰랐어도 지금의 삶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수어 대신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면서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수어 사용을 통해 농인과 접촉할 기회가 생기고, 그에 따라 대인관계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정도가 되겠네요(연구 참여자 B).

20세에 대학교 입학하면서 처음 배웠고, 만약 제가 수어를 몰랐다면 청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며 피곤하게 살았을 거예요. 청인들이 하는 부당한 대우와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받아치지도 못하는 등 청인 사회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매우 소극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수어는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청소년기에는 늘 교실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며 수업 내용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거나,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의 책 필기를 보며 베끼는 등의 방법으로 공부해서 공부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대학교 입학 후에는 문자 통역, 수어 통역의 지원을 통해 수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수업 중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질문을 하는 등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더불어 배움의 즐거움을 알 수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C).

친언니가 농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지화와 기본적인 수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살 때 농인 교회를 다니며 조금씩 배우다가 22살 때 농인 친구를 만나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됐어요. 만약 제가 수어를 모른 채로 살았다면, 지금처럼 구어와 필담으로 소통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외롭기는 하지만 타고난 성격 덕분에 밝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농인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제 자신을 보여주는 거였

어요. 자신을 알리고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고, 사실 수어를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말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중간한 정도에 있으니 혼자 많이 힘들고 외로운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 둘 중 하나에 속했다면 자존감도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공감대를 가진 친구가 없어 외롭고 슬펐고요. 지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해서 괜찮아요(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또한 수어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의견을 널리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성격이 활발하게 변했으며, 긍정적인 태도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이 생겼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수어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C는 수어를 모르는 삶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수어를 통해 주체적인 태도로 삶을 영유하는 데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교 수업에서의 원활한 수어 통역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수어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 B와 D는 만약 수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지금의 삶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지금처럼 수어가 아닌 다른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하며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농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얻는 즐거움에 대한 아쉬움은 컸을 것이며, 농인의 마땅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농인들은 농문화와 농공동체에 접근하면서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농정체성을 그려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황진옥, 2013).

(4) 자신의 농정체성이 직업 선택에 준 영향

자신의 농정체성이 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정체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자신이 농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농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수어를 사용하면서 농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근로지원인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가 장애인이고, 주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성립된 상태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연구 참여자 A).

원래 배우가 꿈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수어로 연기하는 배우를 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 했어요. 막연하기만 했던 저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수어 덕분에 예술의 길을 걸으면서 이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각자의 역량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뻐요(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어를 사용함으로써 농정체성이 확립되었고, 수어가 곧 농정체성이 되어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 A는 건강한 농정체성 함양의 영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제일 먼저 마주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종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 신장 및 원활한 업무 수행에 적극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수어로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되어 여타 다른 배우와는 다른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어를 배움으로써 농정체성을 함양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Rothman(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농인과 농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농정체성을 가진 농인은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은 장애를 경험하면서도 농인 개인의 긍정적인 인생 경험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농정체성 발달은 농인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권순우 외, 2018).

만약 제가 청인이었다면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선택지가 더 많았을 지도 모르겠지만 특별히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정체성 덕분에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뿐인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B).

농정체성보다는 장애인으로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고, 근로지원인 제도를 쓰기에 그나마 제약이 없는 곳이 공공기관이니 그런 이유로 직업을 택한 것이 더 컸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C).

한편, 연구 참여자 B와 C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농정체성의 영향은 특별히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대신 특별 전형 지원이나 근로지원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언급하였다.

2.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는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둘러싼 개인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면밀히 탐색한 결과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하나의 요인에 치중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각 요인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동질감의 부재, 양육자의 태도, 교사와 친구의 반응, 농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며 자신의 장애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수어를 배

워 농사회에 합류함으로써 이차적으로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건강한 농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신의 장애를 더 이상 병리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농문화를 영유하게 되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 중 특히 어머니는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큰 사랑으로 연구 참여자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양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의 태도에 의해 자신의 농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 참여자를 둘러싼 가족, 교사, 친구 모두 청각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 등이 처음이라 서투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농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수어를 배우고 많은 농인들을 만나며 그들을 역할 모델로 삼게 되고, 도전 정신이 생김과 동시에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갔다.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을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이러한 요인들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한지 파악하여 농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의 양육자,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에서 농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심층 면담을 통해 내려진 결과가 농인의 양육과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요인 중 성격 요인은 모든 요인에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격 요인은 특히 농정체성 요인과 결합하여 긍정적인 성격 변화라는 효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장애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여 자연스레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농사회 참여를 통해 수어를 배우고, 건강한 농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 갈등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적인 성격, 도전 정신, 사람과의 소통을 좋아하는 성향 등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이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적극적인 성격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농정체성 요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란 쉽지 않으나 적성 요인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직업 선택은 일차적으로 학창 시절에 부모와 교사의 권유로 이루어졌으며, 장애 장벽으로 인해 도전하지 못한 경험이 모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적성뿐만 아니라 농인의

사회적인 인식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직한 사례의 경우에도 부족한 장애 인식, 미비한 근로지원인 제도 등으로 이직한 사례 또한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현재 사회가 농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근로지원인 제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한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농인 또한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배우며 자신의 뿌리를 가지며 건강한 농정체성을 확립해나갈 수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모두 수어를 접한 이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고, 건강한 농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농인에게 있어 농정체성 요인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성격의 변화는 농정체성의 영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으나, 건강한 농정체성을 함양하게 되면서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인은 건강한 농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농정체성 요인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넷째, 사회적 요인 중 가정환경 요인 또한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유, 혹은 부모의 태도로 장래희망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자녀 또한 그러한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수어를 쓰는 것을 창피해하고 보청기를 가리는 등, 자신의 장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쉽지 않겠지만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빨리 받아들이고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영아기부터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농인에게 있어서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언어는 한국어가 아닌 수어이다. 언어 발달이 제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자녀를 가진 부모는 수어에 대한 높은 수용도는 물론이고, 자녀의 장애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취해야 하며 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 선택이 대부분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성인기에서까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는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시기에 우선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성인기에서는 대학 졸업 후 최종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사와 친구들의 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학교생활에서 청각장애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구어 중심의 청인 사회에서 의사소통 양식이 달라 얻게 되는 경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농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보다 현저히 많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는 농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농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의사소통 양식에 적합한 통역 서비스 제공 및 개별적인 교육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반학교에서는 농학생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수어 통역과 속기 통역 등 적절한 통역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업 참여와 의사소통에서 오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 또한 교사는 수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며, 농학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단순 편의 제공만 하며 물리적 통합에만 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여섯째, 연구 참여자 모두 농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농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은 각각 상이하였지만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든 간에 청각장애에서 비롯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폐쇄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에서 생긴 소극적인 태도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결국 농사회 참여를 통해 비로소 해소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농사회 참여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며 농사회 참여를 위해 수어 교육 또한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수어를 사용하고 농사회에 참여해 농인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농정체성 함양 또한 가능해진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연구 참여자들 모두 단순히 수어만 익혔을 때보다 농사회 참여를 통해 비로소 농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수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장애로 인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 가치관 등을 서로 공유하고, 스스로의 권리 옹호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농사회 참여는 농인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직업 선택 요인이 다양한 농인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사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농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러한 사례 연구가 농

아동 및 농청소년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가져다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개인적 요인에서 성격과 적성, 농정체성은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각장애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겪음으로써 소심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어를 배우고 농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격과 자신의 적성, 그리고 농정체성으로 인해 생긴 긍정적인 태도 및 도전 정신 등이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농인이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치우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 요인의 영향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인이 직업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우선적으로 건강한 농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양육자인 부모가 농인 자녀와 의사소통 양식을 통일하여 정서적인 교감과 지지가 필수적임을 알았다. 연구 참여자 모두 학교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례가 있기에 농학생들이 학교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서비스 및 환경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에 따른 사례 연구를 통해 농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의 양육자,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에서 농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4명은 일반학교를 졸업한 농인 4명으로 모두 수어를 사용한다. 한국의 청각장애학생 중 대다수가 일반학교를 졸업하고 수어를 사용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 내용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농사회를 접하지 않은 일반학교를 졸업한 청각장애인, 농학교를 졸업한 농인 등을 연구 참여자에 포함시켜서 더욱 더 풍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농인 자녀를 둔 농인 부모와 청인 부모의 양육 과정을 비교하여 부모가 자녀와의 의사소통 양식으로 수어를 선택했을 때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농인의 성장 과정에서 수어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Cho, Y. S., Kwon, Y. H. (2009). The Relationship among Attitudes Towards Deaf Cultur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eafnes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1*(1), 263-284.
[조용순, 권요한 (2009). 농인의 농문화에 대한 태도와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11**(1), 263-284.]
- Hwang, H. C. (2011).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Career Choices of the Deaf. Doctoral thesis, Gwangju University.
[황현철 (2011).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wang, J. O. (2012). The Qualitative Research on Identity and Career Selection of Deaf People Who are Working for Professional Job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황진옥 (2012). 전문직 종사 농인의 정체성과 진로선택에 대한 질적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wang, S. Y. (2005). Adaptation Process of Beginning Special Education Teacher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21-245*.
[황순영 (2010). 초입특수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2005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221-245.]
- Jang, E. H. (2012).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of the Deaf to Experience and Job Maintaining.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장은혜 (2008). 농아인의 직업유지와 관련한 농문화 체험.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ang, Y. Y., Jung, H. Y. (2010). A Qualitative on the Life of the Deaf as the Minority Group.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4), 515-543.
[장윤영, 정호영 (2010). 농인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 소리 세계의 이방인에서 수화로 소통하는 소수 집단의 주체로 가능성 찾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515-543.]
- Jung, S. W., Kim, Y. C. (2014). An Inquiry on Writing Techniques for Phenomenological Research. *Th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3), 5-42.
[정상원, 김영천 (2014). 질적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탐구. **교육문화연구, 20**(3), 5-42.]
- Kim, D. H. (2002). A Study on Speech Discrimination Ability between the Hearing Impaired Children with Hearing Aids and Cochlear Implant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김동화 (2002). 보청기 착용아와 인공와우 착용아의 어음 변별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Y. C., Jung, S. W. (2015). Documents Analysis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1*(6), 253-285.
[김영천, 정상원 (2015).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문서 분석. **교육문화연구, 21**(6), 253-285.]

- Kim, Y. I., Kwon, S. W. (2021). A Longitudinal Study on Language Development and Means of Use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s in 2Bi Language Environ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2*(2), 153-180.
[김영익, 권순우 (2021). 이중언어 환경에 놓인 청각장애아동의 언어발달과 사용 수단에 관한 종단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2(2), 153-180.]
- Kwak, J. R., Seo, Y. R., Lee, J. O. (2011). Qualitative Study on Deaf Parents' Experiences Rearing Their Deaf Children: the language Choi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1), 329-349.
[곽정란, 서영란, 이정옥(2011). 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329-349.]
- Kwon, S. W., Kwon, S. B., Kim, Y. I., Kim, T. S., Park, H. J., Paeng, J. S. (2020). *Education for Student with Communication Disorder*. Seoul: Changjisa.
[권순우, 권순복, 김영익, 김태숙, 박희준, 팽재숙 (2020).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서울: 창지사.]
- Kwon, S. W., Kwon, S. B., Kim, Y. I., Yu, J. E., Paeng, J. S., Heo, S. Y. (2018). *Education for Student with Hearing Impairment*. Seoul: Changjisa.
[권순우, 권순복, 김영익, 유정은, 팽재숙, 허세영 (2018). **청각장애학생교육**. 서울: 창지사.]
- Lee, J. S., Choi, E. Y., Kong, M. (2014). Impact of Deaf Identity of the Youth with Hearing Impairment on Career Barrie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4), 339-361.
[이진숙, 최은영, 공마리아 (2014).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정체성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4), 339-361.]
- Lee, J. W. (2002).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sign language*. Seoul: nanam.
[이준우 (2002). **수화언어의 이해와 실제**. 서울: 나남.]
- Lee, J. W.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f Identity and Psychosocial Functions of Korean Deaf Adolesc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4*(4), 173-204.
[이준우 (2003). 한국 농청소년의 농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4), 173-204.]
- Rothman, J. C. (2003). *Social Work Practice Across Disability*, Person Education Inc.
- Yang, C. R. (2022). A Qualitative Study on Transition Experiences from General to Special Schools -With a Focus on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China-.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양초연 (2022).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의 전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중국의 청각장애학생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Yu, G. W., Jeong, J. W., Kim, Y. S., Kim, H. B. (2019).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Reseach Method*. Seoul: Parkyoungsa.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9).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국문 초록>

농인의 직업 선택 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이 태 영 · 권 보 민 · 권 순 우

[목적] 본 연구는 농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개인적 요인과 이러한 사례 연구가 농아동 및 농청소년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직업 선택 요인이 다양한 농인 4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농인의 직업 선택의 개인적 요인에서 성격과 적성, 농정체성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각장애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여러 번 겪음으로 인해 소심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어를 배우고 농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격과 본인의 적성, 그리고 농정체성으로 인해 생긴 긍정적인 태도 및 도전 정신 등은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농인이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치우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 요인의 영향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우선적으로 건강한 농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 주 양육자인 부모가 농인 자녀와 의사소통 양식을 통일하여 정서적인 교감과 지지가 필수적임을 알았다. 연구 참여자 모두 학교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례가 있기에 농학생들이 학교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서비스 및 환경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농정체성, 청각장애, 심층 면담

논문 접수(Received): 2023. 02. 07. / 심사 시작(Examined): 2023. 02. 07. / 게재 확정(Accepted): 2023. 02. 20.